

5. 세이코엔(清香園)

세이코엔(清香園)의 제 4 대 원주, 야마다 씨는 세이코엔의 분재에 대해 ‘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와 동등’하다고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. 가에이 연간(1848-1854 년)에 에도(지금의 도쿄)에서 설립된 세이코엔은 1943 년 오미야 분재 마을로 이전했습니다. 세이코엔은 ‘여백을 살린 에도 양식의 분재’라는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학을 간직하고 있으며,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은 그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 세이코엔에는 꽃을 피우는 식물을 밀집시켜 덩어리 지게 심는 ‘사이카 분재’라는 독자적인 양식이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약 75 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, 특히 오송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세이코엔은 현재 분재에 높은 관심을 가진 약 2,000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, 시설에는 분재의 전시 방법을 가르치는 일본식 방이 갖춰져 있습니다.